

# 오프콤의 'Future of TV Distribution'을 통해 살펴본 지상파 플랫폼의 미래

조영균  
KBS 기술기획부장

## 목차

- 1 들어가며
- 2 TV 플랫폼의 미래(Future of TV Distribution) 보고서
  - 1)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
  - 2) 미디어 플랫폼 및 시장에 대한 분석
  - 3)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상파 플랫폼의 변화 방안
- 3 우리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할 일

## 요약

모바일, 스마트TV 등 인터넷에 연결된 미디어 이용이 확산되면서 지상파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이탈이 점증하고 있다.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상파 플랫폼의 이용 자당 비용 효율성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공공 미디어 서비스로서 지상파 플랫폼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대체재를 모색하는 것은 복잡하고 난해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중시하는 영국의 고민은 깊고 진지하다. 최근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TV 플랫폼의 미래(Future of TV Distribution)>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편적 플랫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의 현실도 영국과 닮아 있기에 우리에게 맞는 비용 효율적인 보편적 플랫폼 체계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들어가며

지난 5월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오프콤이 ‘TV 플랫폼의 미래(Future of TV Distribution)’<sup>1)</sup>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DTT) 및 기타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배포 방식에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 오프콤에 조기 검토를 요청해 작성되었다.

영국 내에서 무료 TV 방송은 지상파 기반의 Freeview와 위성 기반의 Freesat으로 서비스되며, 전국 98.5%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DTT) 전환에 있어 성공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디지털 전환 시 다채널 정책을 통해 기존 5개의 지상파 채널 수를 수십 개로 늘렸다. 디지털 지상파 다채널 방송인 Freeview는 100여 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HD 채널을 제외하고 대부분 SD 화질로 서비스되고 있다. Freeview가 출시된 해인 2002년에 4.2%에 불과했던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율은 7년 만인 2009년에 43.4%로 10배 이상 급상승했다(장병희, 2010 ; 오프콤, 2009). 그러나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공공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TV 방송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보편적 TV 서비스에 대한 영국의 깊은 고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구상이 담겨있다.

## 2. TV 플랫폼의 미래(Future of TV Distribution) 보고서

### 1)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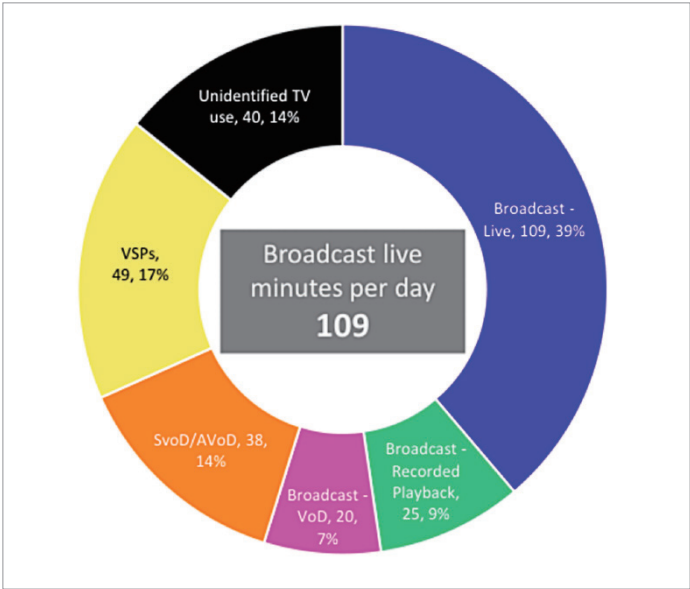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영국에서는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스마트TV 등 인터넷과 연결된 TV 플랫폼의 확산으로 비선형 시청 행태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 국민들이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에서는 동영상 시청 방식 중 실시간 방송 플랫폼의 비중이 가장 높다. 오프콤의 보고

---

1) <https://www.ofcom.org.uk/tv-radio-and-on-demand/public-service-broadcasting/future-of-tv-distribution/>

서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하루 평균 약 4시간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며, 실시간 TV 방송 시청은 109분으로 전체 동영상 이용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공유 플랫폼(VSP)이 17%(49분), 넷플릭스와 Disney+와 같은 가입자 기반 OTT(SVOD) 등은 14%(38분) 수준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영국 내 동영상 시청의 일일 평균 시간(분)



현재 실시간 TV 방송을 통한 시청 시간이 가장 길지만 지난 5년간을 살펴보면 25%가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을 통한 시청은 지난 5년간 35분에서 87분으로 2.5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장편 위주의 실시간 방송보다는 쇼츠 형태의 시청 방식이 선호되고 있고, 온라인 사업자나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VOD, PVR(개인용 방송녹화 장치)을 통한 녹화영상 시청 등 비실시간 시청이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실시간 방송은 TV 플랫폼을 통해 시청되었으나, 최근 IP(Internet Protocol) 전용 가구와 하이브리드<sup>2</sup>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국에서 TV에 인터넷이 연결된 가구는 2018년 기준 600만 가구였으나 최근에는 1,200만 가구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530만 가구가 IP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35년에는 1,780만 가구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등장한 Sky Glass(Sky사의 인터넷 전용 TV 플랫폼), FAST 채널(무료 광고 기반의 스트리밍 TV 채널), Freely(공영방송사 연합 스트리밍 플랫폼)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로 인해 IP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 내 스마트TV 보급률은 70% 수준이고, 이 중 23% 가량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2032년에는 96% 정도로 보급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급된 스마트TV 중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도 13% 가량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지상파 플랫폼에 연결된 TV가 1,320만 가구이고, 이 중 330만 가구(개인 510만 명)는 지상파방송으로만 TV를 수신하고 있다. 이 수치는 향후 10년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상파 플랫폼으로만 TV를 수신하는 이용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지상파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는 시청자는 고령이거나 소외계층일 확률이 높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어, 정책적인 개입 없이는 이러한 이용자들을 다른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디어 이용행태가 IP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IP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상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이용자가 존재할 거라는 점은 방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영국이 미디어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하이브리드(Hybrid) : 지상파 TV와 IP 플랫폼을 접목해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 2) 미디어 플랫폼 및 시장에 대한 분석

지상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 등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났다. 많은 미디어 기기 및 플랫폼들이 지상파와 함께 IP 연결을 함께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콘텐츠 제공자는 IP 플랫폼을 통해 캐치업 및 VOD 서비스, 고화질, 프로그램의 일시 중지 또는 다시 시작 등 시청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타겟 광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사(PSB)들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P 플랫폼으로의 레벨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시청 행태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방송사들이 영위해야 하는 플랫폼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 방송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방송사들의 콘텐츠 전달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지상파 플랫폼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방송사가 지상파 송출을 위해 Arqiva<sup>3</sup>에 지불하는 비용은 가구 수와 무관하게 책정되므로 감소하지 않는 구조이고,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상파 플랫폼 운영 측면에서 비용은 고정적으로 투입되거나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감소로 해당 플랫폼에서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주문형 및 스트리밍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IP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자사의 콘텐츠에 접근하기 원하는 방송사는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영국 내 공영방송사들은 ‘Future TV Taskforce’에서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동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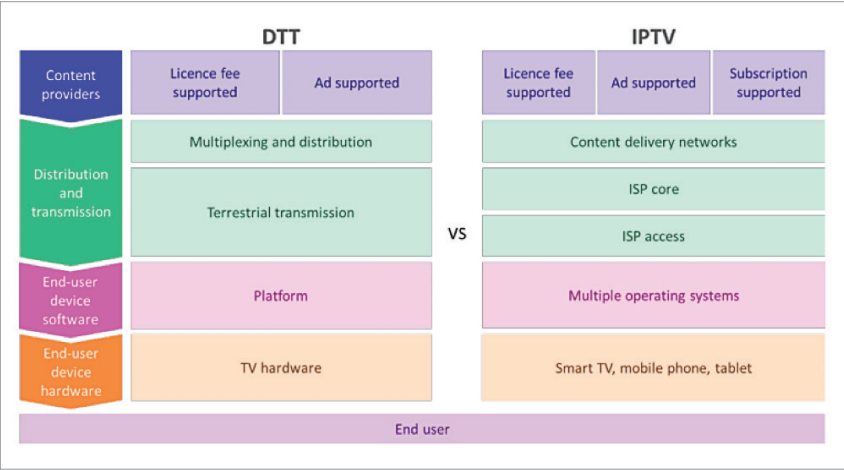
“다양한 TV 유통 방식의 확산이 공영방송사에 점점 더 많은 비용 압박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상파(DTT)와 위성(DSat)에 티핑(Tipping) 포인트가 오고, 이 티핑 포인트가 되면 결국 유통 비용이 편익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TV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상파나 위성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일부 사용자로 국한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의 높은 고정 비용은 사용자당 비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고, 광고를 통해 충당하기 어려워질 뿐더러 라이선스 비용(수신료)의 책임 있는 사용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3) Arqiva : 영국 지상파방송 송출망 관리자

위 발표에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지상파 플랫폼 이용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사용자당 유통 비용 효율성 저하와 다양한 플랫폼의 운영으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위기의식이 담겨있다. 이미 일부 방송사는 방송 플랫폼보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전략적 결정을 공개적으로 내리고 있다. 디즈니는 방송채널 일체를 폐지했으며, ITV는 어린이 채널을 폐지했고, 채널4와 TalkTV 등도 방송채널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송 플랫폼 중 지상파는 콘텐츠 유통 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BBC는 지상파방송의 시청 시간당 비용이 2030년에 현재 대비 약 4배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상파 플랫폼의 효율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Arqiva와 방송사 간 계약기간 및 조건, IP 플랫폼으로의 이동, 지상파방송 이용자의 감소 속도, 방송사의 수신료 및 광고 수입과 같은 수익 관련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상파방송 환경이 축소될 경우 지상파방송에 의존하는 시청자들의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플랫폼 사용 다양화가 초래한 지상파 플랫폼의 이용률 저하로 인해 앞으로 공공 서비스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지상파TV(DTT)와 IP플랫폼(IPTV)의 가치사슬



### 3)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상파 플랫폼의 변화 방안

앞서 살펴본 지상파방송의 비용 효율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의 향후 방향 설정은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영국 대다수 공영방송사의 라이선스가 203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고서에서는 2030년대 중반을 지상파 플랫폼의 변화가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변화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1) 지상파 플랫폼을 고효율·고품질로 업그레이드

첫 번째 방식은 지상파의 표준을 업그레이드해 지상파 플랫폼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Freeview는 6개의 멀티플렉스<sup>4</sup>에서 약 100여개의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멀티플렉스 중 5개는 DVB-T 표준을 사용해 SD화질을 제공하고, 1개는 DVB-T2 표준을 사용해 HD화질을 제공하고 있다. DVB-T2는 DVB-T를 업그레이드한 2세대 디지털 지상파 TV 표준인데, 압축 효율성이 높아 현재 DVB-T2를 사용하는 멀티플렉스(PSB3)에서는 HD 화질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모든 멀티플렉스의 표준을 DVB-T2로 전환해 압축 효율을 높이면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채널 수를 늘리거나 화질을 높일 수 있다. 채널 수를 늘려서 주파수 대역을 적게 사용하면, 나머지 주파수 대역을 모바일 통신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송출에 사용하는 전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 SD인 화질을 HD로 높이면 지상파 플랫폼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고 이용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공공 플랫폼인 지상파를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 비용을 줄이거나 이용자를 증가시켜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표준 변경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변경된 표준방식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 보급 등 시청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도 요구된다.

---

4) 여러 디지털 채널을 방송하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멀티플렉스라고 한다.

### (2) 지상파 플랫폼을 핵심 서비스 위주로 축소

두 번째 방안의 핵심은 지상파의 멀티플렉스 수를 줄이고, 주요 공영방송사의 서비스와 뉴스 채널 등 소수의 채널만 제공하는 것이다. 지상파 플랫폼을 운영하되 현실적으로 비용 효율성 하락을 감안해 공적 기능의 핵심만 유지하는 방향이다. 지상파 플랫폼이 소수의 채널로 운영될 경우 더 많은 이용자들이 IP 네트워크로 이동하면서, 지상파 플랫폼을 완전히 스위치 오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IP로 전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요 스포츠나 행사 중계 시 IP 플랫폼의 과도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상파 플랫폼은 통신 장애나 재난 시에 복원력과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디오나 TV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IP 네트워크로의 점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여러 여건상 유지가 필요한 지상파 플랫폼을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상파 유지와 전면적인 IP 플랫폼 전환의 절충 방안이 될 수 있다.

### (3) 지상파 플랫폼 전면 중단 및 IP 네트워크로의 전환

지상파를 통한 송출을 종료하면 대형 방송사들은 상당 수준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지상파가 점유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 플랫폼을 중단하고 IP 플랫폼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국 내 모든 가구가 IP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영국 내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미가입된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영국 내 190만 가구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고, 110만 가구는 모바일로만 연결되어 있다. IP 플랫폼으로 원활하게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0Mbit/s 이상의 초고속 광대역이 요구되는데 현재 영국 내 28%(약 890만) 가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도 수백만 가구가 여전히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 방안은 추세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면밀한 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며, 향후 영국 내 IP 네트워크의 커버리지와 성능, 모든 가정에 범용 TV 제공 가능한지 여



부 등이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방안은 보편적 시청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경우 연간 수백 파운드의 인터넷 요금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위의 세 가지 방안이 이른바 질서 있게 전개되려면, 정부와 관련 업계 등이 온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향후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34년 이후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방송사, 오픈컴 및 정부 등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지상파 플랫폼에 의존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전망과는 별개로 지상파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공공 방송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원활한 접근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상파 플랫폼의 미래 비전 설정에는 방송사가 부담해야 하는 콘텐츠 전달 비용, 광대역 이용률, 디지털에 대한 사회 전반의 포용력, 광대역 네트워크에 필요한 투자 수준,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의 효용성, 계획에 따른 지원 사항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매우 복합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우리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할 일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IP 플랫폼 이용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 속에 있다. 차이점은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직접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10.5%이며, 5년 전 2017년 16.5%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IP 플랫폼으로의 이동은 급속히 진행되어 왔는데, 일례로 2017년 36.1%였던 OTT 이용률은 2023년에는 77%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영국은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거뒀지만, 공공 방송 서비스의 도달률 확대를 위해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OTT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BBC의 iPlayer 등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OTT의 이용률이 높다. 이처럼 영국이 지상파방송 이용률이 높고, 공영방송 주도의 OTT가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국민의 미디어 접근 권리를 중시해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영국은 방송 서비스를 시장 중심의 상업적 측면이 아닌 공익에 기초한 사회적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이용자 외 여러 역학구도에 따라 정책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상업성이라는 양면의 가치에 대해 지향점과 정체성이 모호했던 측면이 있다. 디지털 TV 전환의 사례에서도 영국은 공공 미디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다채널(Freeview)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 등의 반대 등으로 다채널이 허용되지 못했다. 중간광고 등 비대칭 규제 개선이 조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제도 개선은 그 내용만큼이나 시기가 중요한 만큼 적정 시기를 놓치면 효과도 반감된다. 국내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공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원활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공공 미디어 서비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의 고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다만 지상파의 미래에 대해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장기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오프콤의 보고서를 통해 영국 사회가 국가 방송 체계와 방송의 보편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진지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 지상파 플랫폼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할 것인지, 지상파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지상파 플랫폼을 없앨 것인지 등 선택은 열려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결정에 앞서 여전히 지상파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10%의 사용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 시 방송은 어떻게 할 건지,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IP

등에 의존할 경우 사용자들의 접근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건지, 이대로 지상파방송을 유지한다면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이후 UHD로 지상파 플랫폼의 표준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송출 체계에 변화가 없는 영국은 2030년 대 중반을 지상파 플랫폼에 대한 변화 가능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무렵 지상파 UHD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영국보다는 상당기간 지상파 플랫폼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서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 지상파 플랫폼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는 영국보다 지상파 플랫폼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단위 이용자당 비용 효율성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는 UHD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UHD 방송망 확장 등 전환 로드맵에 맞춰 인프라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UHD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지상파 플랫폼 운영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UHD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로서 HD와 UHD가 동시 방송되고 있다. 두 가지 TV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운영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과거 HD 전환 때에 비해 열악해진 방송사들의 재정 여건상 UHD 투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HD 종료 시점도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동시방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UHD 전환을 조기 완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 조달이 난망하다. 진퇴양난의 현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UHD 인프라 투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HD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하거나, 동시방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UHD 방송망을 구축할 여력이 없는 지역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UHD 다채널을 통해 단일 주파수 대역에서 2개의 UHD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현재 방식으로는 KBS(2개 채널), 지역MBC, 지역민방이 UHD 방송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3개의

송신소 건물에서 8대(4개쌍)의 송신기와 4개의 안테나 등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UHD 2개 방송을 1개 주파수 대역에서 다채널 서비스하게 되면, 1개 송신소 건물에 4대(2쌍)의 송신기와 2개의 안테나만 구축하고 운영하면 된다. 이처럼 구축비와 운영비를 절반 이하로 줄여 지상파 플랫폼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TV 플랫폼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률이 낮은 AM 매체나 DMB 등 여타 매체에 대해서도 지상파 플랫폼의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가 공적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번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건데, 지상파방송이 향후 과거와 동일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이 담당하는 공적 기능은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지상파 플랫폼의 축소이나, IP 플랫폼의 확대이나 여부를 떠나 분명한 것은 공공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상업적 영역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 미디어 환경을 단정할 수 없듯이 지상파의 미래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공공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지상파방송은 그 변화에 대해 그저 바라봐야만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 미래를 고민하고 직접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사회의 공기이다. 영국이 TV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정부, 학계, 업계 등 모두가 인식과 고민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

####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장병희 (2010), 해외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정책 사례 연구 : 영국 프리뷰(Freeview)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서울.

Ofcom (2009), <The Communications Market in UK 2009>.

Ofcom (2024), <Future of TV Distribution>.